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기술력의 정수를 담은 리베르소 에나멜 컬렉션

예거 르쿨트르 그랑 메종은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 공방의 고도로 숙련된 인그레이빙 기술력과 에나멜 기법의 정수를 담아 예술적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리베르소 모델 3점을 선보입니다. 다이얼 앞면은 정교한 수공 기요세 패턴과 반투명한 그랑 퓨 에나멜로 장식하고, 뒷면은 각각 점묘법과 수묵화, 일본 판화의 상징적이고 특별한 기법으로 완성된 회화 작품을 에나멜 페인팅으로 재현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 세 가지 회화 기법의 거장인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 쉬베이홍(Xu Beihong), 카츠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의 대표작을 한 점씩 선택하여 리베르소 뒷면을 캔버스 삼아 거장들의 작품을 재현했습니다.

이 특별한 에디션을 위해 그랑 메종은 아르데코의 아이콘인 리베르소 트리뷰트 제품을 선택하고, 에나멜 페인팅을 위해 최적화된 화이트골드 케이스를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각각 8점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 모델은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 조르주 쇠라,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Georges Seurat,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다이얼 앞면은 100년 이상 사용해 온 전통방식의 기요세 패턴 기구를 사용해 세심하게 장식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이 기구를 통해 표현된 작은 마름모꼴의 기요세 장식은 짙은 그린 컬러의 컬러의 반투명 에나멜 코팅 아래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그린 컬러는 뒷면의 회화 작품과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오랜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다이얼의 앞면만으로도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지만, 케이스 뒷면에 그려진 에나멜 작품은 마치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났을 때와 같은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조르주 쇠라(1859년-1891년)가 1884년에서 1886년 사이에 그린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는 점묘법을 이용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인 쇠라는 19세기 회화의 역사를 바꾼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60여점이 넘는 스케치를 하며 약 2m x 3m 크기에 달하는 이 작품을 2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파리 근교의 센 강둑에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점묘법은 물감을 칠하기보다는 다양한 컬러의 작은 점을 찍어 관객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되어 보이게 하는 기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에나멜 장인은 이 작품을 미니어처로 재현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 폭이 3m가 넘는 크기의 작품을 3cm² 면적에 재현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에나멜 장인은 점묘법을 구사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매우 얇지만 단단하고 자주 교체할 수 있는 붓과 같은 특수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에나멜로 점묘법을 구사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회화 작품을 재현한 후 여러 겹의 에나멜 보호막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으로 인해 색의 채도가 떨어지므로, 이를 고려해 실제 회화 작품보다 더 짙은 색을 사용해야 하므로 더 많은 시도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완벽한 컬러 재현을 위해 초기 연구 시간을 제외하고, 이 작품을 재현하는 데만 70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 쉬베이홍(Xu Beihong)의 작품에서 얻은 영감

그랑 메종은 이 작품을 통해 수묵화 기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이얼 앞면은 마더오브펠을 연상시키는 섬세한 아이보리 컬러의 반투명 에나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쉬베이홍(1895년-1953년)은 20세기 중국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으로, 모필화와 유화, 소묘, 파스텔화, 붓글씨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말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폭이 5m가 넘는 원작은 중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말 10마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에나멜 장인은 원작에서 묘사된 말 2마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미니어처 작업 또한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겹의 에나멜 보호막을 덮더라도 원작에 표현된 먹물의 터치감, 유연성, 섬세함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장인은 말의 격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터치를 선보이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말의 갈기와 같이 매우 작은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단색 작업은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 에나멜 장인에게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랑 메종의 에나멜 장인이 재현해낸 말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생동감에서 장인의 탁월한 노하우가 드러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 카츠시카 호쿠사이, 카나가와의 큰 파도 (Katsushika Hokusai, The Great Wave off Kanagawa)

예거 르쿨트르의 장인들은 이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호쿠사이 작가가 구사하는 일본 판화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다이얼의 앞면은 뒷면의 그림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작은 파도 패턴이 정교한 기묘세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카나가와의 큰 파도’에서 표현된 짙은 블루 컬러의 반투명한 에나멜로 코팅되었습니다.

카츠시카 호쿠사이(1760년-1849년)는 목판화 ‘후지산 36경’의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 예술가입니다. 이 시리즈는 일본 전통 주제에 서양 미술의 원근법을 최초로 도입한 상징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명성을 드높인 작품 ‘카나가와의 큰 파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에나멜 장인은 이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모델의 뒷면을 장식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파도의 움직임의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 파도뿐 아니라 파도의 거품과 거품이 튀는 형상, 그리고 채색된 컬러 등을 고려하여 작품이 지닌 힘과 특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며 섬세한 디테일을 재현하기 위해 에나멜 장인은 많은 연구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번에는 맑고 고요한 하늘을 어떠한 붓 터치도 보이지 않게 재현해 내는 것이 난관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앞선 두 개의 작품을 재현할 때 부딪힌 난관이었던 점묘법에 가까운 디테일과 정교한 붓 터치가 동시에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그랑 메종의 절대적 아이콘인 리베르소는 장식 기술, 특히 초소형 작품을 그려내는 에나멜 페인팅 기술로 완성한 회전형 케이스를 통해 아름다운 예술 걸작품을 선사하는 모델입니다. 1931년 탄생한 첫 번째 리베르소 모델에서 각면 처리된 애플리케 인덱스와 도피네 핸즈에서 엿볼 수 있는 아르데코 스타일을 계승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시계는 특별한 수공 장업이 더욱 돋보이는 개성있는 다이얼을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선보이는 새로운 이 세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랑 메종의 예술적 창의성과 문화·예술 세계를 향한 열린 시각의 상징인 메티에 라르 워크샵에서 개발한 진귀한 노하우를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

저희는 1833년 스위스 산맥의 발레 드 주 계곡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창립 이후부터 모든 시계를 시계 명장들이 무브먼트에서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어 조립합니다. 여기에는 독창성과 의지, 성실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갈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www.jaeger-lecoultre.com